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부정거사(扶正祛邪)

부정거사(扶正祛邪)란 '우리 몸의 정기를 북돋게 해서 사기를 물리친다'는 개념으로 한방치료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는 보약(補藥)과 사약(瀉藥)을 처방한다. 보약 처방은 우리 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에 대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병이 발생했을 때, 병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기를 북돋는데 활용된다. 사약은 희빈 장씨가 그토록 거부했던 사약(死藥)과는 다른 의미로, 우리 몸의 나쁜 기운을 땀 등의 형태 등으로 몸 밖으로 쏟아낸다(瀉)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정기도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됨에 따라 기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약을 함께 처방을 한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에너지, CSR과 SRI

우리는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운동을 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생존을 위해 우리 몸 속의 암세포를 도려내거나,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 항암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이쯤에서 우리사회의 화두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생존, 또는 그것을 위해 인간과 지구환경을 해치지 않는 경제적 번영의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적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SRI)로 관심을 돌려보자. SRI는 자본시장이 사람과 지구환경을 위해 기능 하도록 하는 매개체 또는 CSR 확대의 동력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경영방식이다. 다시 말해 두 가지는 보약의 역할처럼 우리 사회의 파괴와 부조리와 부패를 미리 예방하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강한 에너지와 잠재능력을 우리사회에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명약

사회책임투자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는 기업에게 투자라는 보약의 기능과 함께 사약의 기능도 함께 한다. 예로 기업의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개선 요구는 우리 몸 속의 암세포를 도려내듯, 기업에게서 불건전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좋은 기업에게 투자가 되는 자본의 '순환'이 보약으로 뒤따르지 않으면, 일부의 우려처럼 CSR/SRI가 기업의 가치증대에 효과적인 공헌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나 주체를 기업의 경쟁력과 자발적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호도하는 행위는 참으로 위험하다. 예컨대 CSR활동이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하나, 그렇지 않은 CSR활동은 무의미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SRI는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긍이 가나, 그렇다고 SRI를 통한 건전한 사회변화를 수익률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SRI 태동배경을 왜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NGOs)의 CSR/SRI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노력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이해관계자들간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한 사회보고서 발간 요구와 평가 노력을 기본적으로 자발성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자본시장이 인간과 지구환경을 위해 기능하도록 하는 사회적책임투자와 기업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CSR 관련 요구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기업을 열망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위험요소를 미리 막고, 암적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위한 보약인 셈이다.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바라면서 그 외침을 기업 경영의 방해 요소로 호도하거나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까.